

한국 현대건축의 전환기적 표현에 관한 연구

金鍾麒

(서울 시립대학교 석사, 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

洪大炯

(서울 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I. 서론

한국의 근대건축과 현대건축의 특성과 區分이 모호하여 혼란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는 현상형은 韓國現代建築史의 定立을 시급히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호성을 소거하려는 목적하에서 轉換期-1960~70년대-를 설정하고, 表現-近代性과 傳統性-을 준거로 내재된 思想, 變化動機, 周邊領域과의 關係 등을 고찰하였다. 이때 전환기는 '思潮들이 相互關係를 갖는 時期'이며, 근대건축과 현대건축의 중간시기로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상건물에 국한시키는 것 보다 周邊領域-이데올로기, 정치, 기술, 문학, 조각, 회화 등¹⁾-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 논리적 추상성과 독단적 가치기준으로 부터 벗어나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1) LAMPUGNANI, VITTORIO M.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IN THE TWENTIETH CENTURY', VAN NOSTRAND REINHOLD, 1985, pp. 7~9

II. 한국 현대건축의 성립과정

근대건축이 현대건축의 바탕이 되는 점은 어느 나라이든 동일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근대건축은 내재된 사상으로 인해 현대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모호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현대건축에 앞서 근대건축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 내재된 사상을 도출할 필요성이 크다.

1. 개항과 초기양식 건축

우리나라에 양식건축의 이입은 병자수호조약에 따른 부산(1876), 원산(1880), 인천(1883)의 개항으로 시작되었으며, 한미수호조약(1882) 등 타국과의 국교성립으로 각국의 공사관 및 상업건물로 확대되었다. 이런 건물들은 각국이 나름대로 표현한 르네상스나 절충양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²⁾ 당시 국내는 안정된 정국이 못 되었기 때문

2) 尹一柱, '韓國 洋式建築 80年史', 治庭文化社, 1966, pp. 38~44

에 이질문화를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일제치하로 넘어가므로써 우리의 문화는 과도기가 아닌 도입기에서 좌절되었고, 을사보호조약(1905) 체결 후 탁지부건축소의 창설로 건축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 되었다. 즉 탁지부청사(1907), 공업전습소본관(1908), 광통관(1909) 등을 비롯한 건물들이 탁지부건축소에 의해 건립되면서 그들의 실험장이 되었고, 일본인 기사와 일하던 목수들에 의한 일본풍 건축이 해방 이후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대작용도 발생하였다.

2. 일제하의 주변영역과 민족주의

일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중국 및 조선에 대한 문화적 열등의식에 젖어온 자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성을 느끼고 한민족말(살정책)살정책을 시행하였다. 민족말살정책은 내선일체, 일선동조론(同祖同根思想), 조선민족의 황국신민화정책, 조선어 교육의 폐지 및 사용금지, 창씨개명, 정체후진론의 성립, 그리고 천조대신의 신주를 집집마다 걸고 경배토록 하는 행위 등의 시책이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민족문화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식민지의 현실적 고통과 직면한 활동이 되었으며, 抵抗主義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민족주의자들의 문화활동은 바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재필의 독립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항은 민족의 현실문제와 유리된 순수주의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거나 탐미주의 내지 퇴폐주의적 방향으로 흘렀으며, 민족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저항주의와 비판의식이 배제된 경우는 復古主義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점이다.³⁾ 이러한 일제하의 주변영역은 해방 후에 나타나는 傳統性 表現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식민화로 기인된 文化斷絶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을 내세우게 되었으며, 동시에 시대에 대한 비판의식의 결여와 문화단절에 대

한 觀念的 民族主義로 인해 복고주의에 귀착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은 6.25 이후 분단문화이 갖는 특징-6.25의 미체험세대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콤플렉스로 인해 분단에 대한 의식이 觀念化되어 나타나는 현상⁴⁾-처럼 건축도 문화단절을 극복하려는 심리가 관념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의 형성 시기에 대한 논의는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강화도조약(1876)이고, 둘째는 실학사상의 대두 시기, 셋째는 1800년대말의 대한제국 시기, 넷째는 3.1운동시기로 요약될 수 있다.⁵⁾ 이러한 주장들의 차이는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이 내재적인 자아의식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외부의 충격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근대건축은 어떠한가? 실학사상에 의한 수원성의 축조와 개항을 계기로 삼지 못하였고, 1930년대에 들어와 한국 근대건축가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외부에 의한 충격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은 '척사적이고 보수적인 성격, 개화사상의 문명과 근대적 발전 지향성, 동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평등성을 주조'로 하는 한국근대사회의 민족주의적 성격 중에서 斥邪的이고 保守的인 성격과 부합되어 抵抗的 民族主義가 내재된 복고주의에 귀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주의와 전통계승의 문제를 연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성은 강한 민족주의를 동반하는 세계의 현황과도 비교될 것이다. 즉 사담 후세인과 이락크인들이 가졌던 사상, 결프전에서의 미국인의 국가주의적 자존심, 독립을 외치는 소련의 공화국들의 근본사상, 그리고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과 통일로 더욱 강화된 독일의 우월적 민족주의⁶⁾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4) 김윤식, 「80年代 우리 文學의 理解」, 서울大出版部, 1993, p. 157

5) 陳德奎 外, 「한길歷史講座 3-韓國現代史와 歷史意識」, 한길사, 1987, pp. 9~17

6) 金玄浩, 「新나치스……排斥테러 4百件」, 朝鮮日報, 1991년 10월 16일자

3) 강만길, 「韓國現代史」, 創作과 批評社, 1984, pp. 135~160

볼 수 있다. 물론 내재된 성격의 차이로 국수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그 핵심이 되는 사상은 민족주의라 하겠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우리에게 세밀한 검토를 요구한다.

“가장 넓은 의미의 민족주의는 어떤 문화적 집합체의 동질성 추구이며, 자기주장으로서 그것 자체는 선악의 문제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주장은 인류문명에 색채를 주며, 활력을 준다.”⁷⁾ 교육에서부터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를 民族의 潛在力을 표출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하여 복고주의에서 탈피하고, 창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전통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때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근대건축가

한국의 근대건축가로는 박길용, 박동진, 박인준, 강윤, 김세연, 장연채, 김순하, 유상하, 유원준, 이천승, 김희춘, 김재철 등이 있다. 이들 중 박길용은 한국근대건축의 선구자로서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기능을 우선하면서 굵은 띠를 사용하여 F. L. WRIGHT와 L. H. SULLIVAN의 작품을 연상케 한다. 조선생명보험사옥(1930)의 차양과 스펀드럴, 이문당사옥(193?) 창 사이의 작은 벽에 있는 凹凸무늬, 동일은행남대문지점(1931)의 돌출 벽기둥, 화신백화점(1937)에도 근대적이지만 고전적 장식이 남아있어 過渡期的인 傾向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실용상 필연적인 것만을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 양풍 또는 일본풍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개념에 구애됨이 없이 생활자체가 우려내는 새로운 방향에서 재발족해야 하는 것이다.”⁸⁾ 라고 말하여 기능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그의 제자인 김한섭은 “일본사람은 너무 선이 가늘어. 너무 신경질적이야. 섬사람들이니까. 우린 달라. 대륙이야, 대륙.’ 확실히 선생

님은 무게있는 것을 좋아하셨다. 국제양식건축이 전세계를 휩쓸 때 선생님은 건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족적, 지역적 건축양식을 추구했다.”⁹⁾ 라고 언급하면서 그 예로 혜화전문학교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절충주의적 시도는 대동공업전문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박길용은 “본관의 파사드에는 그리이스풍의 수직기둥을 가미하였고 중앙입구 부분에는 기와지붕으로서 페디먼트 모양을 내었으므로 서양과 동양이 절충된 양상을 나타낸 棟割長屋型”¹⁰⁾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가 기능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표현에서는 절충식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절충식 표현은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당시가 한국근대건축의 과도기라는 점도 함께 인식할 수 있다. 물론 근대건축을 소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태화기독교사회관(1939)에 대해 강윤은 “오히려 무양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외부와는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예배당만은 그런대로 고딕을 모방하였다. …… 현장에 있었던 고조선건축의 기와가 팔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 …… 뒷골목에서 볼 수 있는 조선식의 토담 또는 행랑체에 애착심을 가지고 그것을 무엇인가 도입하여 보고 싶었다. ……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재료로서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모양의 집을 세우게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닐까.”¹¹⁾ 라고 설명하고 있어 지역성을 강조하는 듯 하다. 그러나 부지가 3.1 운동시 33인이 모였던 태화정 자리이며, 태화정에 있던 그 기와를 이용하여 한국식으로 하였다는 사실은 강윤이 주장하는 지역성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으나 당시 상황으로 인해 전통을 지역성으로 대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한양절충식을 만들어 내는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 金漢涉, 「建築家 朴吉龍-追想錄」, 空間, 6704, pp. 15~16

10) 崔珣愛, 「朴吉龍의 生涯와 建築에 關한 研究」, 弘益大, 1981, pp. 166~167

11) 尹一柱, 「韓國近代建築史研究」, 技文堂, 1988, pp. 85~86, 再引用

7) 村上泰亮, 「多様な文化の意味에 대한 寛容」, 日本포럼, 1991여름호, p. 14

8) 尹一柱, 「建築家와 社會: 朴吉龍氏의 生涯와 業績이 뜻하는 것」, 空間, 6704, pp. 12~14

구분	開港 1876~	日帝下 1910~	解放直後 1945~	6.25 動亂中 1950~	動亂直後 1953~
周邊 領域	近代化 계기 병자수호조약 각국-수호조약 異質文化的 移入 度支部建築所 ⇒ 건축계의 침략	근대화 좌절 을사보호조약 일본문화적열등감 ⇒ 민족말살정책 ⇒ 抵抗的民族主義 ⇒ 척사보수적성향	近代化 계기 민족문화 건설 이데올로기대립 일제⇒ 경제 피해 (文化疲弊→'60) 전제민 구제	국토의 황폐화 민족분단 혼란기의 연장 미군정 영향 확대 ⇒ (일본→미국) ⇒ 實質的 過渡期	戰後復舊 경제, 정치, 사회등나후 美國援助(인재양상) ⇒ (미국 일변도 사회)체제 民族分斷(분단극복) ⇒ 분단문화(觀念化)
建築	각국의 영사관 상업건물, 학교 독립문	해화전문학교 화신백화점 태화기독교사회관	조선건축기술단 국민주택설계안 서울만물권현상	유엔전우탑현상 국군총흔탑현상 경주국군묘지현상	공공건물의 복구 住宅問題
表現 및 性格	折衷樣式 日本風 建築 建築=技巧	韓國近代建築家 한양절충식 文化斷絶(觀念化) ⇒ 觀念的民族主義 ⇒ 傳統-復古主義	건축사조 논의 日色 제거⇒ 傳統 - 抵抗的民族主義 시급한 住宅問題 建築=技巧(지속)	건축사조논의단절 '50-實質的過渡期 '60-轉換期的樣相 ⇒ 混在된 現狀 ⇒ 近代/現代-模糊	國際主義樣式(經濟性) 민족분단 고착화, 이데올로기대립점예화 ⇒ 優越的民族主義 ⇒ 傳統-復古主義

표1 한국 근대건축의 성립과정

4. 해방과 전후의 근대건축

일제로 부터의 해방은 주택난과 일본색 제거라는 사회의 긴급한 요구로, 건축이 기교에서 벗어나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고, 더우기 건축사조가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6.25가 발발하여 개항 이후 근대건축을 소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앗아갔으며, 사회의 황폐화와 민족분단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었다.

황폐화된 사회가 긴급한 복구를 요구함에 따라 그 바탕이 되는 해외원조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특히 미국의 원조는 인재육성사업을 포함하면서 우리가 미국일변도의 사회체제를 지니는 요인이 되었다.¹²⁾ 따라서 經濟性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주의양식의 수용은 무비관적 수용이 아닌 戰後復舊에 기인된 것이다. 물론 이를 기반으로한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는 이에 따른 문제를 낳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발생한 회의는 외국문화에 대한 抵抗的 民族主義를 유발케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휴전 이후 분단의 고착화와 이데올로기대립의 첨예화는 남북간의 서로 우위를 지키고 이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통을 내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건축은 復古主義를 통해 저항적 민족주의와 우월적 민족주의를 표현해야만 했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는 1960년대 중반에 표현되기에 이르렀고,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발생하는 시기를 轉換期라고 규정할 수 있는 타당성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해외원조를 바탕으로한 전후복구는 실질적인 過渡期를 맞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근대건축의 실질적인 과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안정, 그리고 해외자료의 신속한 유입을 바탕으로 현대건축의 전환기적 양상이 발아하면서 두 가지 흐름이 엮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근대건축과 현대건축의 특성과 구별이 모호해졌으며, 한국현대건축의 유무에 대한 의구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Ⅲ. 현대로의 추이

1. 합리주의

전술했듯이 한국의 건축이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 것은 미군정기부터 시작하여 막대한 원조가 쏟아져 들어온

12) 성인수, 「解放後 轉換期 韓國建築의 性格」, 韓國建築 歷史學會, 9106, p. 20

6.25 전후복구에 기인한다. 따라서 전후복구라는 시급한 사회상황으로 인해 초기합리주의(국제주의 양식)는 수용 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단순한 요소의 변형 등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 특징은 평활하고 백색인 벽면, 넓어진 창유리, 그리고 루버의 사용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천승의 신신백화점(1955), 김태식의 중앙방 송국청사(1957), 성균관대 법정대학(1959), 김정수의 정신여고과학관(1958), 차경순의 중앙대 도서관(1958), 이광노의 서울대공대 과학관(1964, 현서울산업대) 등이 루버를 기능적 용도와 함께 표현의 요소로 사용하여 건물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했으며, 이천승의 국제극장(1957), 김중업의 명보극장(1957), 정인국의 국립중앙관상대(1960) 등은 '볼륨(VOLUME), 규칙성, 장식의 배제'¹³⁾를 기본원리로 하는 국제주의양식의 특징 중 볼륨을 더욱 강조한 예이다. 특히 명보극장은 김중업이 건국대 도서관(1956), 부산대(1956), 서강대본관(1958)에서 보여주는 LE CORBUSIER의 영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비대칭의 근대적인 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요소의 변형으로 구성된 초기합리주의는 1960년대 표현주의적 작품이 등장하기까지 한국건축의 주된 흐름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여 전후복구에 치중한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천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1970년대에 이르러 건축기술의 발달로 고층화와 재료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후기 합리주의는 요소의 변형에서 벗어나 매스(Mass)를 하나의 언어로 사용하고, 표현의 다양화를 피하려고 하였다. 특히 종합건축의 ASPAC문화센터(1970), 한국증권거래소(1975) 등은 가운데 코어와 네모서리에 서비스 코어를 두어 구조적 안정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김정철의 한국의환은행본점(1973), 대구은행본점(1979)은 기단(Podium)과 탑(Tower)의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

는 1970년대에 都市問題가 거론되면서 고층건물의 획일성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원도시건축의 케미칼빌딩, 엄이건축의 동아건설사옥 등도 동일한 맥락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1980년대 나타난 조형적 측면에서의 과감한 표현에 비해 그 특징이 미약하다.

불란서대사관(1960)은 LE CORBUSIER의 도미노(Domino)이론과 근대건축의 5원칙(필로티, 옥상정원, 자유로운 평면과 입면)을 적용하였으며, 역사적 범례로 곡선지붕을 도입하고 이를 다시 조소성을 통해 표현주의적 성향으로 표출시키고 있으며, 밀바의 집 그리고 엄덕문의 피정센터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다. 이러한 複合的인 表現은 轉換期的 樣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김수근의 자유센터(1964)도 합리주의에 표현주의적 성향을 부가하여 복합적인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6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합리주의적 건물에 표현주의적 경향을 부가한 계획안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1960년대의 표현주의를 소화하고, 합리주의의 무성격적인 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부산시청사현상설계(1969)에서 최창규(3등), 유걸(변용, 이태영 합작)의 계획안은 합리주의에 표현주의적 경향이 부가되어 있으며, 김석철의 계획안은 구성주의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신옥강(1등)과 손한중(김성곤 합작, 2등)의 계획안은 합리주의에 입각해 있어 당시 합리주의 성격이 우선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또 김종근의 농민회관, 서상우의 시민보건복지센터, 나상진의 정부종합청사계획안도 복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합리주의와 표현주의가 소화되어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동시에 전환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시도가 되지 못한 것은 표현주의와 합리주의가 각각 성격이 강한 점이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앙포르멜(IMFORMELS, 추상표현주의)이 1960년대 후반에 막을 내리고, 건축에서의 표현주의도 노출콘크리트로 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공백기를 갖게 되면서 큰 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며, 건축 기술의 발달로 고층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의 관심이 후

13) HITCHCOCK, HENRY, R. 'THE INTERNATIONAL STYLE', W. W. NORTON COMPANY, 1976, pp. 40~77

기 합리주의적 작품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 표현주의

6.25는 초기 합리주의를 수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앵포르멜에도 영향을 주었다. 앵포르멜은 6.25의 산물이며, 산업화로 인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평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생명력과 원초적인 성격을 표현한 1960년대 한국미술의 주류이다.¹⁴⁾ 이러한 미술과의 교류, 조소성을 갖는 노출콘크리트의 등장, LE CORBUSIER의 영향, 그리고 전후복구로 획일화된 합리주의적 건축에 대한 반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표현주의적 작품이 등장하였다. 김종업의 서산부인과병원(1965), 김수근의 워커힐 힐탑바(1961)가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점은 기존에 복고주의로 분류되었던 부여박물관(1967)은 전술했던 불란서대사관, 자유센터와 같이 노출콘크리트의 조소성을 이용하여 표현주의적 성격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건물에 대한 언급에서 전통을 우선하게 된 까닭은 전통문제의 집착으로 관념적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밑받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불란서대사관은 전통논의가 대두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으며, 당시 이들의 작품이 표현주의에 두고 있었으며, LE CORBUSIER와 吉村順三(요시무라 준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앵포르멜과 영향관계를 형성하였고, 부여박물관에서 구조를 노출시키는 표현방법은 워커힐 힐탑바와 유사성을 갖기 때문이다.

마산양덕성당, 한국교육개발원, 태양의 집(1979)이 등장하기 까지 표현주의는 사실상 공백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김수근이 부여박물관의 전통논쟁으로 '노출콘크리트에서 벗어나 유기주의를 표현하는 벽돌로 새로운 조형을 시도하고, 김종업은 조소성을 이용한 곡선의 표현,

특히 지붕으로 전통적인 표현에 집착하는 한편 다양한 재료, 단순한 형태의 추구로 그 변화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공백에 기인한다. 특히 김수근의 양덕성당과 경동교회(1981), 불광동성당(1984)에서 보여지는 다원성을 갖는 표현주의는 유기주의적 성향이 부가되어 있다.

3. 기계미학

이천승의 장충체육관(1960)은 1960년대에 들어 체육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새로운 건축기술의 시도라는 측면에서 구조와 기술을 표현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장충체육관이 순수 기하학적 형태의 돔(Dome)을 강조하였다면, 이광로의 구덕체육관(1966)은 하이퍼셸(Hyper-Shell)을 네개의 기둥에 덮여 마치 새가 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1960년대의 표현주의적 경향과 구조, 기술의 표현을 함께 수용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이광로의 부산민중역사(1964)와 한양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1964)에서 볼 수 있는 표현주의적 성향으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성향은 김인호의 경북체육관(1972)에서도 발견되며, 특히 서까래를 단순화한 정문은 전통적 요소를 부분적이거나 부가하려는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린이회관(1969)은 한국 최초로 피씨커튼월(P. C. Curtain-Wall)식 외벽마감으로 합리주의적 성격을 표현하는 동시에 건물 상하부의 천문대와 기상레이다가 각각 돔으로 구성되어 기계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며, 10층의 원형회전식당은 기계적 속성을 건물의 기능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1960년대 말의 고층화현상과 함께 우위성을 갖는 합리주의에 부가된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기계미학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당시 큰 흐름이었던 합리주의나 표현주의와 함께 결합하여 나타나는 단순한 기술과 구조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기계미학이 진전을 보이게 된 계기는 88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화를 보여주고 남북한의 대화 재개를 목표로 하는 88올림픽 목

14) 李 逸, '現代美術의 視角', 미진사, 1985, pp. 291

표 중 현대화라는 항목은 기계미학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김종성의 역도경기장(1986)과 강건희의 펜싱경기장(1986)은 이러한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박춘명의 대한생명본사(1985)는 당시 동양최대의 높이와 이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기계미학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기계미학적인 성격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우월적 민족주의를 표현하는 후기 합리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규정해야 하겠다.

IV. 한국 현대건축에서의 전통성 추구

1. 복고주의

6.25로 황폐화되었던 사회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역사학, 국학 등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일어났고, 제3세계의 새로운 자각,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제3공화국의 정치목표,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의 활동 등은 식민지로 기인된 문화단절을 극복하려는 관념하에서 전통의 문제를 부각시키게 되었다.

1966년 애국선열조각상건립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수많은 선열상이 再現, 模寫, 復原 등의 개념으로 건립됨으로서 건축에서의 전통도 고건축을 콘크리트화하여 복원하는 작업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동시에 고건축을 모사하고 재현하는 복고주의는 자연스럽게 강요되었다. 대표적 실례인 종합박물관(1971)은 설계지침부터 고건축을 모사하도록 강요받았고, 강요된 지침은 건축가들의 항의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신축 중이던 부여박물관은 일본식이라는 오해에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전통논의는 文化斷絶에 대한 觀念的 民族主義와 외국문화, 특히 일본에 대한 抵抗的 民族主義가 내재되어 있음을 증명함에 충분하다.

종합박물관 이후 국립극장(1973), 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 1975), 국회의사당(1975) 등이 건립되었는데 이러한 건물들이 갖는 직설적 복고주의와

차이점은 전통적 요소를 현대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인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면에서 전통 계승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전술했던 관념적 민족주의와 함께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선전물로서 전통을 보여주려는 優越的 民族主義가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국회의사당은 정치적 권위주의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복고주의에는 급속한 産業化와 近代化의 通弊에 기인된 외국문화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도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을 모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88올림픽은 강한 민족주의를 동반하면서 복고주의와 기계미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화와 전통의 표현이라는 목표 중에서 전통의 표현은 복고주의를 회귀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전통과 역사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일면은 88 올림픽으로 기인된 민족주의와 시기적으로 일치되면서 복고주의를 회귀케 하는 정당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된 복고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김기웅의 전주시청사(1985), 독립기념관(1987) 등을 들 수 있다.

2. 유기주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대화의 통폐와 건물의 고층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都市問題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술에서는 自然性을 중요시하고, 무명적이고 중성적인 사상에 바탕을 둔 미니멀아트(MINIMAL ART)와 컨셉츄얼아트(CONCEPTUAL ART)가 수용되고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변용되었다. 특히 단색주의(MONOTONISM)는 우리 고유의 정신을 표현하는 문제이며, 외부의 영향으로 부터 벗어나는 모더니즘의 출발로 평가되고 있다.¹⁵⁾ 이러한 미니멀 아트의 성격 중 자연성과 무명적인 성격은 김수근의 네가티비즘(NEGATIVISM)과 유사성을 갖

15) 吳光洙, 「바래진 것의 情緒와 構造」, 藝術과 批評, 1986여름호, pp. 128~130

는다. 이러한 연관성은 근대화의 통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 해결점을 한국적인 것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공통성이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사고는 전통문화의 계승을 의외에 두지 않고, 공간을 비롯한 사상 등에서 찾으려는 점에서 복고주의와 구별되며, 복고주의에 비해 발전적인 구성임을 인식할 수 있다.

김수근은 부여박물관의 전통논쟁과 도시의 문제로 인해 노출콘크리트로부터 탈피하고¹⁶⁾ 최순우로부터 문화적 전통(HERITAGE α)의 휴머니즘에 귀의하여 궁극공간과 네가티비즘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표현하는 재료로 벽돌이 선택되었으며, 다시 등장한 벽돌은 도시의 획일화에 지친 건축가들에게 재고할 계기를 심어주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건축가협회 1980년도 건축상 수상작 7점 중 정동제일교회, 한일은행종합연수원, 샘터사 사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1979) 등 4점이 유기주의적 성격을 담고 있는 현상은 그 영향이 많았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술했던 양덕성당 등은 유기주의적 성향을 바탕으로 두고 표현주의적 경향을 추구하므로써 다원성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김수근의 강원도 어린이회관 및 야외극장(1980)과 김정철의 창원 새마을회관(1981)은 노출트러스 등을 이용하여 기계미학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기계미학이라고 보기 보다는 유기주의에 기계적 요소를 부가시킨 표현으로서 기계미학의 초기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기계미학은 당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유기주의에 부가되어 서서히 등장하다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그 활로를 열었는데 1995년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위성인 무궁화호가 발사될 경우 기계에 대한 동경에 촉매역할을 하여 성격이 강한 사조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비판적 지역주의

근대건축의 유산을 포기하지도 않고, 지역풍토의 감각적 모방에 정반대되면서 재해석된 風土의 要素를 전체내의 분리적 요소로서 삽입하는 비판적 지역주의¹⁷⁾와 다소의 유사성을 갖는 건물들로 이광로의 대한교육연합회회관(1966),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67), 성심여고 본관과 과학관(1972), 김석철의 온양민속박물관(1978) 등이 있다. 이 건물들은 근대적인 속성과 지역적인 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현에 있어 노출콘크리트와 벽돌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발생한 도시문제와 전통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측면에서의 유기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유기주의는 전통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면, 비판적 지역주의는 근대적 속성하에 전통적 속성을 결합시켜 표현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노출콘크리트를 이용한 근대적 속성과 1970년대의 유기주의적 성격 사이에 위치하여 두 성격을 이어주는 교두보적 역할을 하는 시도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성격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주변영역과 함께 한국현대건축의 轉換期에 있어 표현에 내재된 사상과 변화동기, 주변영역과의 관계 등에 대해 역사적으로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현대건축이 혼돈된 상태로 파악되는 원인은 1950년대에 나타난 근대건축의 실질적인 과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1960년대 전환기적 양상이 등장하면서 두 성격이 혼재되었기 때문이

16) 金壽根, 「視覺公書-千字春秋」, 韓國日報, 1970년 4월 11일자

17)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1985, pp. 326~327

다. 즉 개항 이후 근대화 계기는 식민화와 6.25로 인해 좌절되었고, 6.25 이후 전후복구로 기인된 실질적인 과도기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안정, 신속한 해외자료의 유입을 바탕으로 현대건축의 轉換期的 樣相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얽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근대건축과 현대건축의 특성과 구별이 모호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 기인되어 한국현대건축의 유무에 대한 의구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 전통계승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가지 성향을 갖는 民族主義의 複合的 作用이 復古主義로 귀착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일제 식민지로 기인된 문화단절에 대한 觀念的 民族主義, 민족분단의 고착화와 이데올로기 대립의 첨예화에 기인된 優越的 民族主義, 전후원조와 급속한 근대화의 통폐에 기인된 외래문화에 대한 抵抗的 民族主義의 복합적 작용이 전통의 계승을 복고주의에 귀착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전통의 계승은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할 것이다. 특히 다시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들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시급하다. 따라서 주변영역이 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 정치, 문화, 사회 등에서 복합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민족주의를 재정립할 때 비로소 전통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역으로 건축계가 전술한 성향들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면에 우선하여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새로운 전통 속에서 활기를 갖는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세째, 6.25로 인해 황폐화된 사회가 긴급한 복구를 요구함에 따라 그 바탕이 되는 해외원조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특히 미국의 원조는 인재양성사업을 포함하면서 우리가 미국일변도의 사회체제를 지니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前後復舊의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經濟性을 우선으로 하는 초기 합리주의(국체주의양식)는 무비판적 수용이 아닌 사회의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

네째, 표현주의는 6.25로 기인된 당시 상황과 미술과의 교류, 조소성을 갖는 노출콘크리트의 등장, LE CORBUSIER의 영향 등이 결합되어 나타났다.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의 형식으로 생명력과 원초기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표현주의의 일부 작품이 복고주의로 분류된 까닭은 전통의 집착으로 관념적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유기주의는 부여박물관의 전쟁논쟁으로 기인된 노출콘크리트에서 탈피와 급속한 근대화에 따른 도시문제로 부터 기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인 것으로 외기에 두지않고 공간이나 사상 등에서 찾으려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판적 지역주의는 1960년대 노출콘크리트와 1970년대의 유기주의를 이어주는 교두보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로 인해 그 성격이 미약하다.

여섯째, 88 올림픽은 강한 민족주의를 동반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면과 일치되면서 복고주의를 회귀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기계미학에 실질적인 계기를 제공하여 주었다. 1995년에 계획된 인공위성의 발사는 기계에 대한 동경에 강한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계미학은 성격이 강한 사조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思潮들이 相互影響關係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사조들이 소화되고, 영향력을 가지면서 큰 흐름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동시에 轉換期的 樣相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격에 기인하여 한국현대건축사에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미약하나마 역사적 정리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전환기를 지닌 현시점에서 총체적인 한국현대건축의 역사적 정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역사를 정리함에 있어 준거를 近代性和 傳統性에 대한 表現의 문제로 설정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게 된다. 즉 두 가지 준거를 표현의 문제로만 설명할 때 건축의 다른 부분인 건축기술, 구조, 재료, 공간, 배치 등에 대한 서술부족으로 인해 총체적인 역사의 정

* : 미래형(추측) 표시

구 분	合 理 主 義	表 現 主 義	機 械 美 學
周邊領域	戰後復舊의 시급한 요구 미국원조→實質的過渡期 經濟性, 輕量技術, 표준모들 經濟開發5個年計劃 급속한 産業化와 近代化 공업디자인의 전환기('66)	INFORMELS-전후발생 (原初的, 生命力) 産業化에 대한 비판 미술과 건축의 교류 노출콘크리트의 彫塑性 LE CORBUSIER의 영향	공업화로 인한 기술 발달 넓은 공간의 사회적 요구 * 실용인공위성('95) ⇒ 기계에 대한 동경 ⇒ 새로운 활기 예상
建 築	신신백화점('55) 중앙방송국청사('57) 명보극장('57) 서강대본관('58) 부산시청사('69) 한국의환은행본점('73) 대한생명본사('85)	위커힐힐탑바('61) 서산부인과('61) 태양의 집('79) 한국교육개발원('79) 박시우치과의원('85)	장충체육관('60) 신경합성체육관('78) 문화방송국('82) KDI국제연수원('83) 역도경기장('86) 펜싱경기장('86)
표 현 및 성 격	'60-부분적인 요소의 변형 루버, 볼륨(멀리언) '60말-합리주의+ 표현주의 ⇒ 고층화로 지속되지못함 '70-매스를 언어로 '80-과감한 조형적 시도	김중업-原初的→지붕, 전통 김수근-力動性→유기주의 多元化 표현주의적 복고주의 불란서대사관-한국의 원초성 부여박물관-구조 노출	'60-構造, 技術의 단순표현 '70-합리주의(고층화현상) 유기주의(도시, 전통) ⇒ 공백기 80-올림픽으로 활기 (전통과 현대화 표현)
구 분	復 古 主 義	有 機 主 義	批 判 的 地 域 主 義
周邊領域	문화-분단극복(觀念化경향) 역사화-민족주체성 회복 제3공화국-民族的 民主主義 교육-주체성(국민교육헌장) 조각-선열상(재현, 모사) 제3세계의 새로운 자각 * 선진국-민족주의⇒ 복고	MINIMAL ART, CONCEPTUAL ART -自然主義, 無名性, 中性 -近代化와 産業化의 通幣 -都市問題, 文化環境 -NEGATIVISM과 유사 김수근-부여박물관 전통논쟁 ⇒ 노출콘크리트 탈피	노출콘크리트에서 탈피 (의부영향에서 탈피 시도) 地域性 강조
建 築	종합박물관('71) 국립극장('73) 세종문화회관('75) 국회의사당('75) 광주박물관('78) 전주시청사('85) 독립기념관('87)	공간사옥('77) 정동제일교회('79) 한국은행종합연수원('79) 천주교한강교회('79) 우리마당연작('80) 서문교회('83) 사랑의 교회('84)	대한교육연합회('66) 한국과학기술연구소('67) 성심여고본관, 과학관('72) 성심여대본관('75) 은양민속박물관('78)
表 現 및 성 격	전통의 새로운 해석-轉換期 文化斷絶⇒ 觀念的 民族主義 南北對立⇒ 優越的 民族主義 近代通幣⇒ 抵抗的 民族主義 88올림픽+ 포스트모더니즘 ⇒ 復古主義 回歸	김수근-NEGATIVISM 궁극공간 HERITAGEα 전통: 형태⇒ 공간, 사고 노출콘크리트에서 탈피 부지, 주변상황 고려	근대적 원리+공간적 전통 근대적 재료+지역적 재료 (노출콘크리트+벽돌) 노출콘크리트⇒ 유기주의 (橋頭堡的 역할) 성격이 미약함

표2 한국현대건축의 성격과 주변영역과의 관계(1960~70년대 중심)

리로 미흡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짧은 시기의 역사를 서술할 때 넓은 범위에서 비교 분석하기에 한계가 드러나고, 이 연구가 적절한 역사

의 정리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른 후 이 시기를 그 시대의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묶으려 할 때 서술의 핵심이 매우 상이해질 수 있으며, 특히

구분	表現主義	機械美學	合理主義
有機主義	양덕성당 불광동성당 ◇유기주의바탕-多元性 추구	창원 새마을 회관 강원도 어린이 회관 ◇유기주의+기계적 요소	●批判的 地域主義 대한교육연합회 회관 ◇EX-CON→유기주의(轉移)
表現主義		구덕체육관 ◇새로운 기술+표현주의 경복체육관 ◇부분적 전통요소(소극적)	시민보건복지센터 부산시청사계획안-1,2등 외 ◇합리주의의 劃一化 脫皮
復古主義	부여박물관 ◇표현주의+EX-CON(拘足) 불란서대사관, 밀파의 집, 피정센터 ◇近代 5原則+곡선지붕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시민회관) ◇傳統要素⇒現代化
合理主義	자유센터 ◇합리주의+EX-CON 彫塑性	어린이회관(남산) 대한생명본사(후기 합리주의적 경향우선) ◇단순한 技術과 構造 표현	

표3 한국현대건축의 전환기적 표현(사조의 상호영향관계)

전환기라는 시대적 특성이 또 다른 커다란 전환기에 일부분으로 삼입되어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A Study on the Theory of Expression in Transitional Period of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Kim, Jong Gi
Hong, Dae Hyung

ABSTRACT

I'm going to endow with any characters to the mixed history of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rearrange the relations between motive of transfer and the ideology which is concluded in expression through considering the transitional period which is based on the modernity, tradition and additional area such as ideology, politics, technology, literature, sculpture and painting etc. This abstract explain only characters of revivalism in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Revivalism have some complexed nationalistic leanings. Our transitional succession returned to revivalism that is limited by its form. Of course, that is due to complexed operating such as the Ideal Nationalism against the severance of our culture which had been done by Japan, the Superior Nationalism which is developed by antagonism of our own ideology was due to dividing into sections of our own country, and the Resistant Nationalism against foreign culture.